

#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소득 분배율\*

홍민기\*\*

## I. 머리말

1970년대에 캐나다와 영국에서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증가한 반면, 유럽대륙 국가에서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감소하면서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노동소득 분배율의 변화 요인으로 기술변화, 개방(무역, 국제화) 등과 더불어 산업구조 변화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은 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한다. 이러한 가설을 de Serres et al.(2002)은 유럽 5개국(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과 미국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한 것은 상당부분 산업별 변동 때문이다. 즉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은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업은 자본집약도가 매우 높아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은 산업이다. 스페인을 대상으로 한 Ruiz(2005)의 연구와 유럽 15개국을 대상으로 한 Arpaia et al.(2009)의 연구에서도 산업구조 변화가 노동소득 분배율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sup>1)</sup>

외국에서는 노동소득 분배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반면, 한국에서는 연구가 매우 적다. 배진한(1989)은 소득분배에 대한 이론을 교섭력이론, 독점력이론, 신고전파 수요공급이론, 개발 도상국 이론으로 나누어 각 이론을 검증하였다. 김배근(2013)은 노동소득 분배율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는데, 노동조합의 협상력보다는 가격결정력, 독점도 등 기업이 생산물시장에서 갖는 힘의 정도가 노동소득 분배율에 영향을 크게 준다고

\* 이 글은 홍민기(2013)의 연구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hminki@kli.re.kr).

1) 반면 Lawless and Whelan(2011)의 연구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며,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한 것은 주로 기술변화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였다. 홍민기(2011)는 노동소득 분배율의 경기변동성을 분석하였는데, 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경기에 순행한다고 하였다. 홍장표(2013)는 1991~2009년의 한국 제조업 18개 산업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제조업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의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무역의존도의 증가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자본증진적 기술진보, 생산의 세계화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하락시킨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의 노동소득 분배율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 II. 노동소득 분배율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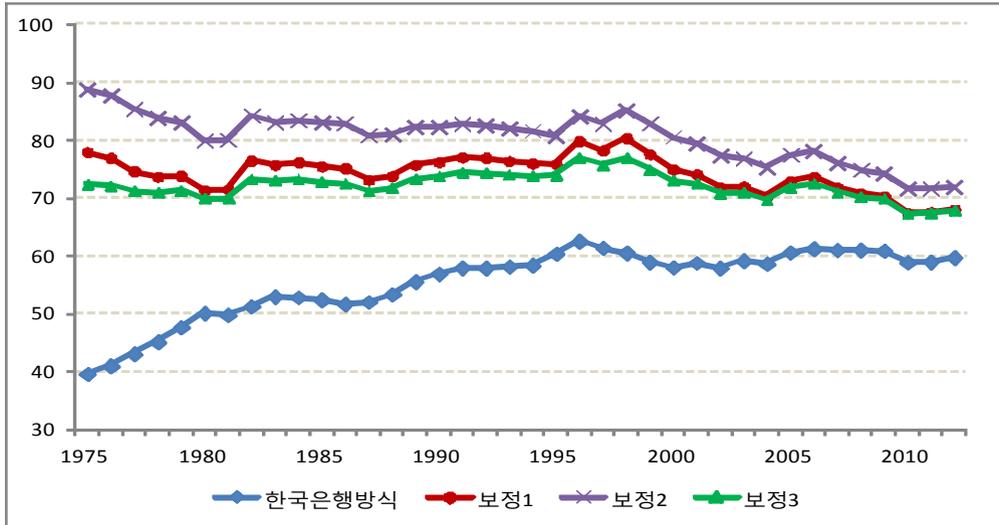
노동소득 분배율은 생산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의 비율을 의미한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부가가치 중 피용자에 대한 보상의 비율로 정의된다. 노동소득 분배율을 측정하려면 피용자에 대한 보상과 부가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는 생산활동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가치로서, 총산출에서 중간소비(중간투입)을 빼서 구한다. 국민계정 자료에서 총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이자, 임료, 고정자본 소모,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총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 소모를 빼면 순부가가치가 된다. 순부가가치 중 간접세(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는 재산 소유에 따른 수익이 아니므로 노동소득 분배율을 계산할 때는 제외한다. 즉 노동소득 분배율을 계산할 때의 부가가치는 국민계정 자료의 총부가가치에서 간접세와 고정자본소모액을 빼서 구한다.

피용자보수를 측정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소득 분배율을 측정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이다. 현재 국민계정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은 모두 영업이익(개인 영업잉여)에 포함시키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에는 임금과 이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 중 얼마만큼이 임금이라고 할 것인가를 가정하여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정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방법에는 (1) [보정 1] 자영업 부문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기업에서의 노동소득 분배율과 같다고 가정하는 방법, (2) [보정 2]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노동소득으로 간주하는 방법, (3) [보정 3] 자영업자 소득의 2/3를 노동소득으로, 1/3를 자본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 (4) [보정 4] 자영업자의 임금이 임금근로자의 임금과 같다고 가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중 넷째 방법, 즉 자영업자의 임금이 임금근로자의 임금과 같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OECD, BLS, EU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림 1] 보정된 노동소득 분배율



[그림 1]에서는 보정된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국은행 방식’이란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이윤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정 전의 노동소득 분배율이다. ‘보정 2’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노동소득으로 처리한 것이다. ‘한국은행 방식’을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한값, ‘보정 2’의 결과를 상한값이라고 볼 수 있다. 자영업자 소득의 일부를 노동소득으로 처리한 ‘보정 1’과 ‘보정 3’의 방법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을 계산하면, 외환 위기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과 같다고 가정하는 ‘보정 4’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과대추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때로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100%를 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Glyn(2009)이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농업부문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정 4’의 방법을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 보정에 사용하는 것은, 적어도 한국의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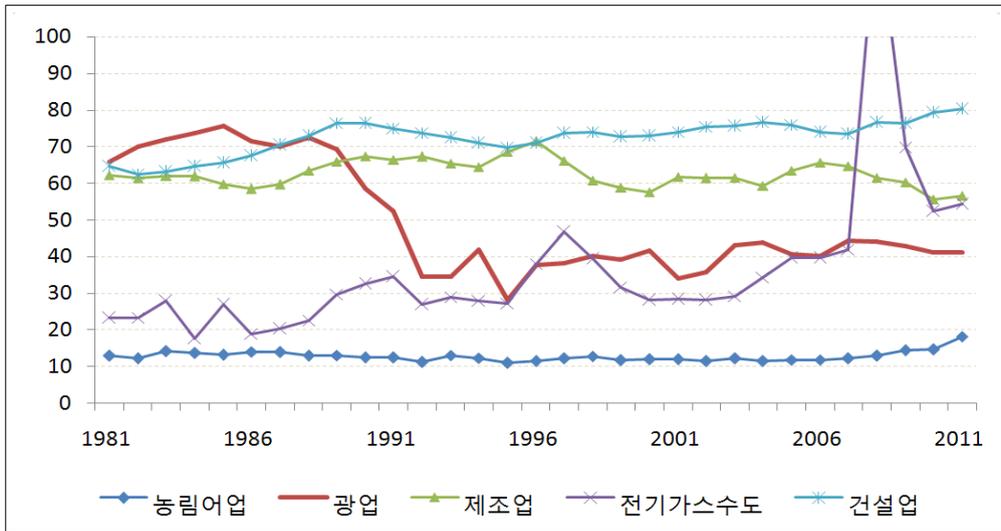
### Ⅲ.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요소소득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산업별 부가가치와 피용자보수에 대한 정보는 국민계정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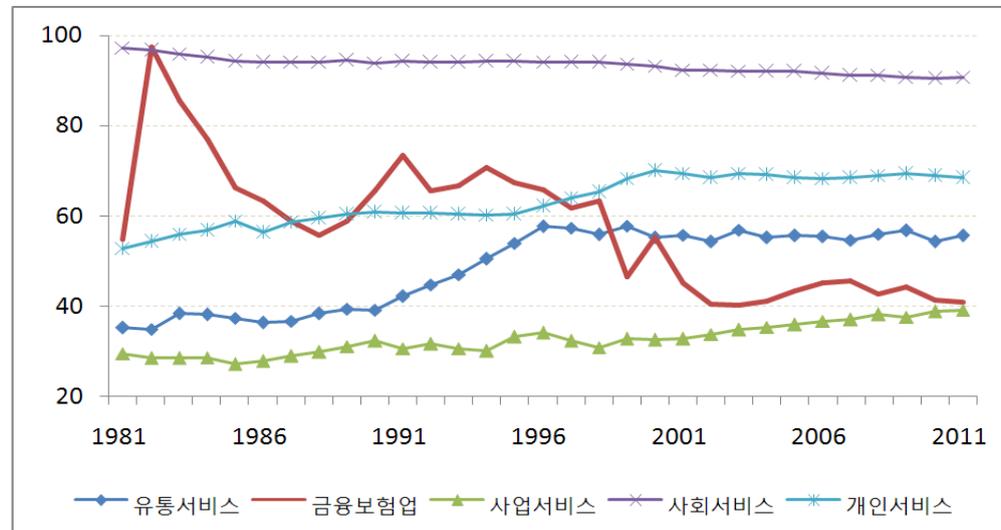
치와 요소소득'에서 구할 수 있다.

산업별로 피용자보수를 부가가치로 나누어 노동소득 분배율을 계산한 결과가 [그림 2], [그림 3]에 나와 있다. 국민계정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영업잉여로 간주한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노동소득 분배율을 본 연구에서는 보정전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부른다.

[그림 2] 보정전 노동소득 분배율의 추세



[그림 3] 보정전 노동소득 분배율의 추세(서비스업)



주: 서비스업의 구분에 대해서는 <표 1>을 참고.

〈표 1〉 서비스업의 구분

	해당 산업
유통서비스업	도소매, 운수 및 보관업, 정보통신업
금융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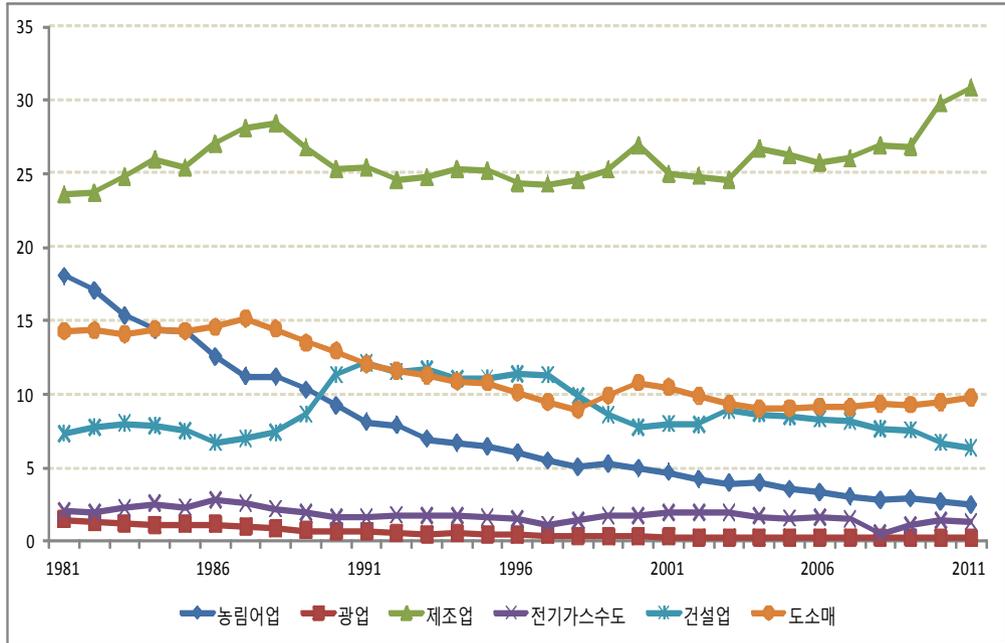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할 때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은 산업은 사회서비스업(공공행정, 교육, 보건, 복지 등), 개인서비스업(음식, 숙박, 문화, 오락 등)이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은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전기가스업, 광업, 제조업이다. 농림어업에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약 90% 정도여서 보정 전에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지만 자영업자 소득을 보정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매우 높다.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산업에 대해 보정을 거치면 상대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은 산업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로 측정된다. 산업구조의 변화 양상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난다. 1980년대에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변화가 주를 이루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도 농림어업의 하락세는 지속되었던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늘지 않았다. 대신 건설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났다. 건설관련 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다른 서비스업의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도소매업의 비중은 크게 하락하였다(그림 4,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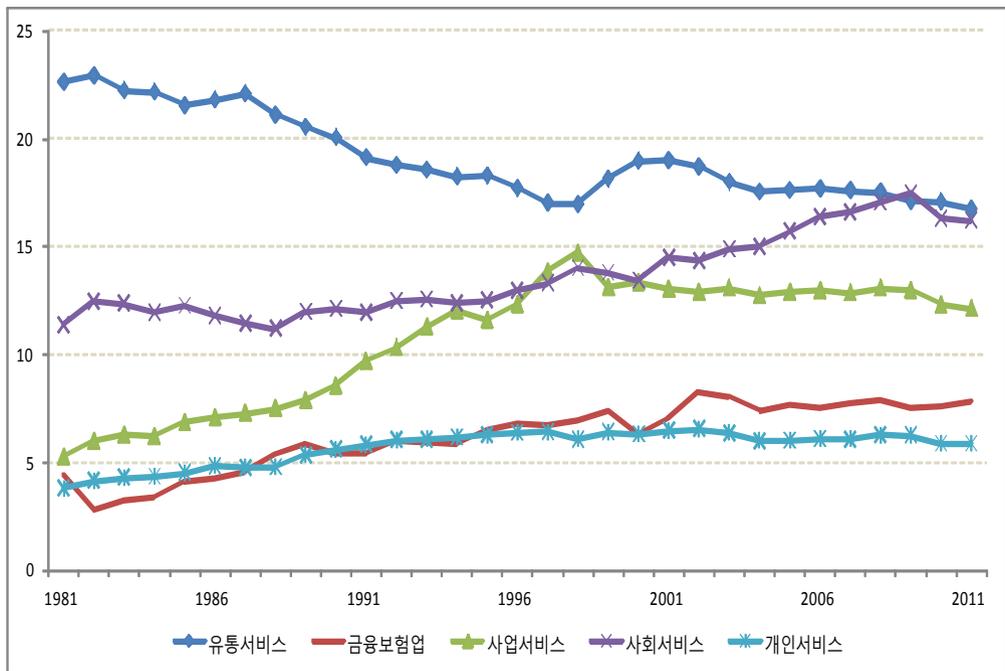
2000년대에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산업 간 부가가치 비중 변화의 표준편차가 1980년대, 1990년대 각각 3.7, 2.4인 반면, 2000년대에는 1.3에 불과하다. 2000년에는 사회서비스, 사업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다른 서비스업의 변화는 미미하였다.

2000년대 산업구조 변화에서 특징적인 것은 건설업 비중의 하락과 제조업 비중의 상승이다. 농림어업에서 제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한 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구조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농림어업의 비중하락이 지속되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함께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이 제조업 부문에 있고 이 제조업 대기업이 2000년대에 성장한 결과이다.

[그림 4] 부가가치 비중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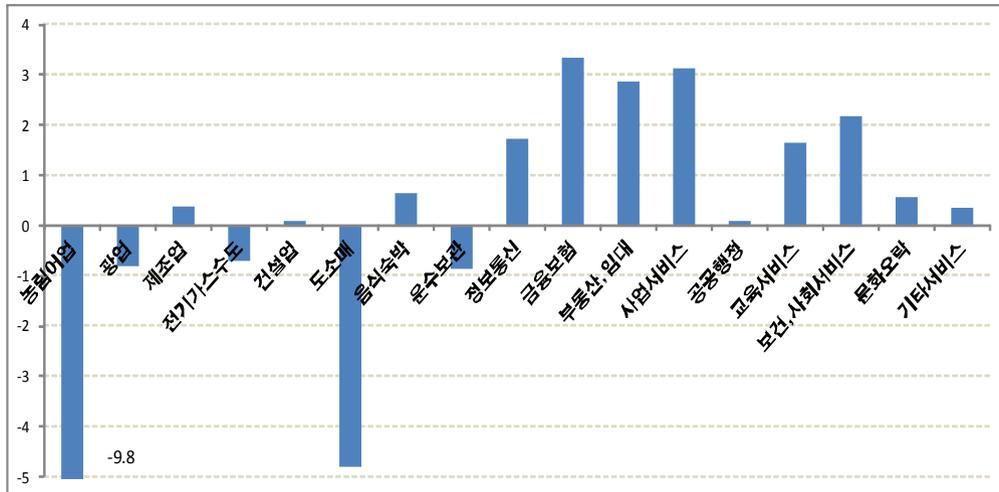


[그림 5] 부가가치 비중의 추세(서비스업)



[그림 6]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

(단위 : %p)



1970년 이후 현재까지 부가가치 비중이 하락한 산업은 농림어업, 도소매업이다. 특히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70년대 26.5%에서 2000년대 3.5%로 크게 하락하였다.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한 산업은 제조업, 금융보험업, 사회서비스업(특히 교육, 보건, 복지), 사업서비스업이다(그림 6 참조).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한 산업 중 제조업, 금융보험업, 사회서비스업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은 산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변화는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한 산업 중 사회서비스업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사회서비스업의 발전은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많이 하락한 농림어업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은 산업이므로 농림어업의 쇠퇴는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하락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산업별로 노동소득 분배율 변화의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산업 내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산업 내 노동소득 분배율의 추이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소득 분배율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 IV.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소득 분배율

노동소득 분배율의 전체 변화 중 산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소득 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동소득 분배율 변화 중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를 분해하고자 한다.

경제 전체의 피용자보수를  $W_t$ ,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를  $V_t$  라고 하면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  $S_t$ 는 이들의 비율로 정의된다. 그리고 피용자보수를 임금근로자의 보수 ( $E_t$ )와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 ( $F_t$ )으로 나누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S_t = \frac{W_t}{V_t} = \frac{E_t + F_t}{V_t} \dots\dots\dots (1)$$

노동소득 분배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중 임금몫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지만, 국민계정 자료에서는 임금근로자의 보수만 피용자보수에 포함되어 있다. 즉 국민계정 자료에서의 노동소득 분배율  $\tilde{S}_t$ 는 다음과 같다.

$$\tilde{S}_t = \frac{E_t}{V_t}$$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비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보정하기 위한 방법이 달라진다. 이하에서는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정하고, 분배율 변화의 효과를 분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비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보정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금이 임금노동자의 임금과 같다고 가정을 한다. 즉,  $w_t^e = w_t^s$  라고 가정하면, 비임금근로자 임금을 보정한 노동소득 분배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S_t = \frac{w_t^e N_t^e + w_t^s N_t^s}{V_t} = \frac{E_t}{V_t} \frac{L_t}{N_t^e} = \tilde{S}_t \frac{L_t}{N_t^e} \dots\dots\dots (2)$$

위 식에서  $N_t^e, N_t^s$ 는 각각 임금근로자 수와 비임금근로자 수를 나타내며,  $L_t = N_t^e$

+  $N_t^s$ 는 전체 근로자 수이다. 즉 자영업 소득을 보정한 노동소득 분배율은 보정전의 노동소득 분배율에 임금근로자 비중의 역수를 곱한 것이다. 다른 것이 동일할 때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면 보정된 노동소득 분배율은 감소한다.

국가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의 가중합으로 표현된다.

$$S_t = \sum_{n=1}^k \frac{E_{nt}}{V_{nt}} \frac{L_{nt}}{N_{nt}^e} = \sum_{n=1}^k \frac{V_{nt}}{V_t} \frac{E_{nt}}{V_{nt}} \frac{L_{nt}}{N_{nt}^e} = \sum_{n=1}^k v_{nt} e_{nt} q_{nt}$$

위 식에서  $v_{nt} = V_{nt}/V_t$ 는 산업  $n$ 의 부가가치 비중,  $e_{nt}$ 는 자영업 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산업  $n$ 의 노동소득 분배율,  $q_{nt} = L_{nt}/N_{nt}^e$ 는 산업  $n$ 의 임금근로자 비중의 역수를 가리킨다. 위 식으로부터 0기와  $t$ 기 사이의 노동소득 분배율 변화는 세 가지 항목으로 분해된다.

$$\Delta S_t = \underbrace{\sum_{n=1}^k \Delta v_{nt} e_{nt} q_{nt}}_{\text{산업구조변화효과}} + \underbrace{\sum_{n=1}^k v_{n0} \Delta e_{nt} q_{n0}}_{\text{산업내분배율변화효과}} + \underbrace{\sum_{n=1}^k v_{n0} e_{nt} \Delta q_{nt}}_{\text{산업내고용구조변화효과}} \dots\dots\dots (3)$$

위 식 첫째 항목은 산업내 노동소득 분배율과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부가가치 비중 변화의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첫째 항목은 전체 노동소득 분배율의 변화 중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둘째 항목은 산업내 분배율 변화의 효과를 의미한다. 셋째 항목은 산업내 임금노동자 비율 변화의 효과를 의미한다. 이 셋째 항목을 산업내 고용구조 변화의 효과라고 부를 것이다.

식 (3)를 이용하여 노동소득 분배율의 효과를 분해하려면 산업별로 임금근로자의 비율을 구해야 한다. 이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식 (2)에서처럼 보정전 노동소득 분배율에 임금근로자 비율의 역수를 곱하여 보정한 노동소득 분배율을 구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100%를 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 본 연구에서는 보정한 노동소득 분배율이 100%를 넘지 않도록 임금근로자 비율의 역수를 다시 조정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계산한 결과가 <표 2>와 [그림 7]에 정리되어 있다. 1983년부터 1997년 사이에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4.8%p 낮추는 역할을 하였고, 산업내 효과는 3.9%p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산업내 효과 중 고용구조의 변화, 즉 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는 10.0%p 낮추는 작용을 한 반면 산업내 노동소득 분배율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노동소득 분배율을 13.9%p 높이는 작용을 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1%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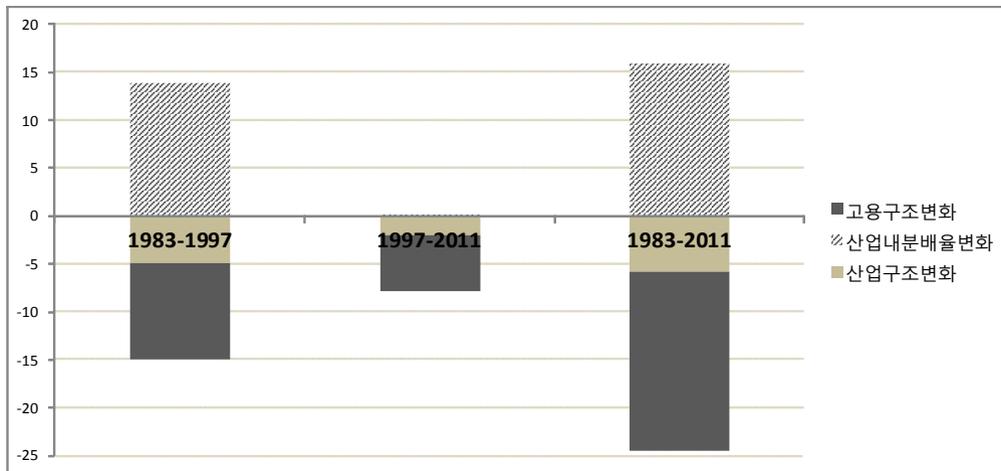
〈표 2〉 노동소득 분배율 변화의 분해

(단위: %p)

	1983~1997	1997~2011	1983~2011
산업구조변화 (a)	-4.8	-2.0	-5.8
산업내 효과 (b)+(c)	3.9	-5.6	-2.8
산업내 분배율변화 (b)	13.9	0.2	15.9
산업내 고용구조변화 (c)	-10.0	-5.8	-18.6
총합 (a)+(b)+(c)	-1.0	-7.6	-8.6

〔그림 7〕 노동소득 분배율 변화의 분해

(단위: %p)



외환위기 이후 시기인 1997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산업내 노동소득 분배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고용구조 변화의 효과(-5.8%p)가 크게 작용하여 이 둘을 합친 산업내 효과가 노동소득분배율을 5.6%p 낮추는 작용을 하였다. 이에 더해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2.0%p)도 노동소득 분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하여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크게 하락하였다(-7.6%p).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는 1997년 이전 시기에 더 크게 작용을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산업구조의 변동이 크게 일어난 반면, 2000년대에는 제조업이 강세를 띠면서 산업구조 변동이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기간 동안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를 주도한 것은 농림어업과 도소매업이다. 1983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구조 변화는 전체 노동소득 분배율을 5.8%p 낮추는 작용을 하였는데, 농림어업의 비중감소가 13%p, 도소매업의 비중감소가 3%p 낮추는 작용을 하였다.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산업구조의 변화는 오히려 전체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인 것으로 나

타난다. 농림어업 쇠퇴가 끼친 효과는 산업화가 급격히 일어난 1980년대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1990년 이후 이미 급락한 농림어업의 비중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농림어업 쇠퇴의 효과가 둔화되었다. 도소매업은 보정된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은 산업인데, 부가가치 비중이 농림어업 다음으로 급속히 하락하였다.

한편 산업내 고용구조 변화를 주도한 것은 도소매업이었다. 1983년부터 2011년까지 고용구조 변화의 효과로 전체 노동소득 분배율이 18.6%p 하락하였는데, 도소매업에서의 효과가 14%p였다. 도소매업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하락하고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상승한 정도가 제일 컸다. 시기별로 도소매업에서 고용구조 변화의 효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규모가 큰 기업이 나타나 자영업이 쇠퇴하는 현상이 도소매업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정하는 다른 방법은 자영업 부문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기업에서의 노동소득 분배율과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분석한 결과는 위에서 분석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sup>2)</sup>.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 변화, 산업내 고용구조의 변화, 산업내 노동소득 분배율의 변화가 노동소득 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해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화는 산업내 고용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산업내 분배율의 변화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였는데 이 긍정적인 효과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라졌다. 그리고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내 고용구조 변화가 노동소득 분배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유지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였다. 이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농림어업과 도소매업이었다. 이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가 급격히 일어났다면 노동소득 분배율도 급락하였을 것인데, 그나마 2000년대에는 제조업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었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도 급격히 하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조업에서는 자본 장비율이 매우 높은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내에서 지금과 같은 노동소득 분배율의 유지 추세가 지속되기 쉽지 않다.

2) 자세한 내용은 홍민기(2013)를 참고.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제조업이다. 그런데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제조업에서 고용이 정체되고 있다. 성장 산업 부문에서 노동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니 서비스업으로 취업이 몰리게 되었다. 일정정도의 학력과 숙련을 가진 사람들은 금융업, 교육서비스, 사업서비스 분야에 진출하여 괜찮은 소득을 얻지만, 생계를 위해 서비스업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은 음식업이나 소매업처럼 진입장벽이 낮은 부문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과도한 경쟁상태에 놓여 높은 소득을 얻기 어렵거나 큰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문을 닫아야 한다. 자영업자의 쇠퇴는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인 경향이나 한국에서는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 현상과 맞물려 쇠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으로 반영되고 있다.

앞으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크게 말해,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은 임금은 높지만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고,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은 서비스업은 임금이 낮지만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다. 향후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은 서비스업종으로의 구조변화가 가속화되면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장이나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배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분배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서비스나 개인서비스가 경제성장이나 산업정책의 논리 때문에 소홀하게 취급되면 안 된다. 정책 수립은 서비스업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보험업이나 사업서비스업은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임금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KLI]**

### <참고문헌>

- 김배근(2013),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분석』 19(3), pp.1~48.
- 배진한(1989),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에 관한 몇 가지 이론들과 한국경제에서의 그 실증적 적합성 검토」, 『경제논집』 5, 충남대 경영경제연구소, pp.1~40.
- 홍민기(2011), 「노동소득 분배율의 경기변동성」, 『사회경제평론』 35, pp.49~73.
- \_\_\_\_\_ (2013),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 강신욱 외,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장표(2013), 「한국 제조업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 분석」, 『산업노동연구』 19(1), pp.1~34.

- Arpaia, Alfonso, E. Perez, and K. Pichelmann(2009), "Understanding Labour Income Share Dynamics in Europe," MPRA paper 15649, University Library of Munich, Germany.
- Bentolila, S. and G. Saint-Paul(2003), "Explaining Movements in the Labor Share", *The B.E. Journal of Macroeconomics* 1.
- Boggio, L., V. Dall'Aglia and M. Magnani(2009), "On Labour Shares in Recent Decades: A Survey", DISCE Working Paper.
- De Serres A., S. Scarpetta, C. De La Maisonneuve(2002), "Falling Wage Shar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ow Important is Aggregation Bias?", *Empirica* 28, pp.375~400.
- Glyn, A.(2009), "Functional Distribution and Inequality", W. Salverda, B. Nolan, and T. Smeeding(eds.),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Gollin, D.(2002), "Getting Income Shares Righ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2).
- Johnson, G.(1954),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United States, 1850-1952",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5(2), pp.175~182.
- Krueger, A.(1999), "Measuring Labor's Shar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9(2), pp.45~51.
- Lawless, M. and K. Whelan(2011),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Labor Shares and Inflation," *Journal of Macroeconomics* 33(2), pp.121~136.
- Ruiz, G.(2005), "Are Factor Shares Constant? An Empirical Assessment from a New Perspective," Technical Report.